

## 식영정에 비친 임억령의 삶과 현판\*

임준성\*\*

### 차 례

1. 머리말
2. 임억령의 삶과 성산동 인연
3. 식영정에서 아름다운 마무리
4. 식영정 현판의 문화콘텐츠 가능성
5. 맺음말

####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석천 임억령이 성산동에서 지냈던 삶과 식영정 현판의 문화콘텐츠적 가능성에 대해서 소략하나마 시론적 성격을 띠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임억령은 73세의 삶을 지내오면서 스승인 놀재 박상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고향 해남에서 올라와 당시 동문수학 했던 김윤제가 살던 곳으로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성산동에서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과거에 합격하여 환로생활을 지내면서 담양부사를 끝으로 64세 때에 고향 해남이 아닌 성산동으로 내려왔다. 그곳에는 첩실인 양씨부인과 두 딸이 살고 있었으며, 자신을 따르는 후배 문인들이 있었다. 사위 김성원이 자신을 위해 ‘식영정’을 지어주면서 그곳에서 만년을 보냈다. 그가 성산동의 승경을 노래한 시가 350여 수가 적지 않음을 볼 때 그의 삶에서 성산동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본고가 주목했던 것은 임억령의 가족, 곧 양씨 부인과 두 딸의 존재였다. 임억령에게 고향이 아닌 성산동은 곧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임억령의 성산동 가족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선산임씨족보와 제주양씨족보를 비교 검토하면서 밝히고자

\* 2020년 전남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에서 진행한 한국시가문화학회 『제33회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 광주여대 한국어교육학과 교수.

하였다.

그 다음은 식영정 누정의 문화콘텐츠적 가능성이다. 식영정은 전남 담양을 대표하는 누정의 하나로 인근의 소재원, 환벽당과 함께 일동삼승(一洞三勝)이라 할 정도로 유명하다. 누정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문화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당대의 인물들이 교류를 나눴던 곳이다. 누정을 중심으로 인근의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누정에 걸린 현판은 스토리텔링 요소로도 재구성이 가능한 문화콘텐츠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임억령, 성산동, 양씨부인, 식영정, 현판, 문화콘텐츠

## 1. 머리말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 1496~1568)은 조선중기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사종(詞宗)<sup>1)</sup> 부를만큼 높은 명망을 받은 시인이다. 그는 전남 담양군 성산동에 식영정(息影亭)을 짓고, 송천 양응정(松川 梁應鼎, 1519~1581), 서하당 김성원(棲霞堂 金聲遠, ?~1592), 제봉 고경명(霽峰 高敬命, 1533~1592),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 등과 사승(師承)·교유(交遊)를 통해 식영정 시단을 형성하면서 16세기 호남 시단의 융성한 성장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전남 담양 식영정에서 지낸 임억령의 삶과 식영정 현판이다. 기실 임억령을 비롯한 호남시단의 연구<sup>2)</sup>는 질과 양면에서 많은 성과

1) 白光勳, <金陵記懷 贈棲霞主人>, 『玉峯詩集』 下, 한국문집총간 47, 138쪽.

2) 호남 한시과 시단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물은 아래와 같다.

정익섭, 『개교 호남가단연구』, 민문고, 1989.

고영진, <16세기 호남사립의 활동과 학문>, 『남명학연구』 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3.

박은숙, 『16세기 호남 한시 연구』, 월인, 2004.

김중서, 『16세기 호남시단과 당풍』,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박중우, 『16세기 호남 한시의 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박명희, 『호남 한시의 전통과 정체성』, 경인문화사, 2013.

\_\_\_\_\_, 『호남 한시의 분석적 이해』, 보고사, 2019.

최한선, 『고전시가와 호남시단의 이해』, 태학사, 2017.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억령이 고향 해남과 달리 담양 성산동에서 삶은 크게 조명받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다. 본고는 이 점을 착안하여 임억령의 성산동 시기를 조명하고, 아울러 현재 누정 식영정에 걸려 있는 14점의 현관을 개괄하여 누정현관이 향후 문화콘텐츠로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전망을 살펴보는 시론적(試論的) 성격이라고 하겠다.

## 2. 임억령의 삶과 성산동 인연

석천 임억령(1496~1568)은 1496년 진남 해남 남문 밖 해리에서 부친 우형(遇亨)과 은성 박씨의 5남 1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다. 자(字)는 대수(大樹)이며,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7세에 숙부이신 임우리(林遇利)에게 공부를 배웠다. 임우리는 조선 전기의 문인 금남 최부(錦南 崔溥, 1454~1504)의 제자이다. 14세에는 동생 백령(百齡)과 함께 광주로 올라와 외삼촌인 박곤(朴鯤)의 주선으로 늘재 박상(訥齋 朴祥, 1474~1530)과 육봉 박우(六峯 朴祐, 1476~1549) 형제에게 수학했다.

임억령은 21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1519년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인해 사림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자 벼슬에 대한 뜻을 접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사화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나자 30세 되던 1525년에 문과에 합격하고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때 청송 성수침(聽松 成守琛, 1593~1564)과 교유를 시작했으며, 성수침은 임억령에게 부친 성세순(成世純)의 묘갈명(墓碣銘)을 짓는 등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1533년에는 어머니의 병환을 지키고자 고향에서 가까운 동복현감(同福縣監)을 지냈다. 이때 기묘명현(己卯名賢) 중 한 분인 신재 최산두(新齋 崔山斗, 1483~1536)가 유배와 있어 자주 만나 가까이 지냈다고 한다.<sup>3)</sup>

3) 『石川先生年譜』, 『石川集』, 여강출판사(1989), 397쪽.

1545년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임억령은 윤원형(尹元衡)이 명종의 외숙이라는 것을 내세워 세력을 꾀해 모략과 암투를 일삼자 머잖아 정국에 평지풍파를 몰고 올 것을 예감하고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 이유는 동생 백령이 외척 권신인 윤원형 일파에 가담하여 이를 만류하였으나 끝내 말을 듣지 않자 당시 금산군수(錦山郡首)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당시 한강을 건너면서 시속을 풍자한 시 한 수를 동생 백령에게 전했다고 한다.

好在漢江水  한강수야 잘 있거라  
安流莫起波  편히 흐르되 물결일랑 일지 마라<sup>4)</sup>

임억령이 벼슬을 사직하자 그때의 사신이 기록하기를 ‘사람됨이 소탈하여 엄매인 데가 없었다. 또 영화와 이익을 좋아하지 않았다. 동생과 함께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쾌히 멀리 떠나 병을 청탁하고 오지 않았으니 그의 동생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sup>5)</sup> 하여 임억령의 소탈하고 엄매임없는 성품을 평했다.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이 쓴 『기재잡기(寄齋雜記)』에 보면 임억령의 스승이었던 박상이 두 형제의 사람됨을 평가한 부분이 있다.

“눌재는 임억령에게 『장자』를 가르치면서 ‘너는 반드시 문장이 될 것’이라 했고, 백령에게는 『논어』를 가르쳐주면서 ‘너는 죽히 관각의 문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sup>6)</sup>

눌재는 임억령이 문장에 타고난 재주를, 백령은 관리로서 야망을 일찍이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계 박세채(南溪 朴世采, 1631~1695)는 임억령의 묘표(墓表)에서 ‘공 친성은 기개가 있고 뜻이 커서 남에게 놀려 지내지 않고, 기

4) 許筠, 『槿所覆頤藁』, 권23, 한국문집총간 74, 339쪽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11, 고전국역총서 3, 191쪽.

5) 『明宗實錄』 원년, 11월 7일 기사.

6) 朴東亮, 『寄齋雜記』 권3, <歷朝舊聞 三> ‘訥齋嘗授石川莊子曰 爾必爲文章 授嵩善論語曰 足爲館閣之文’

이한 절의와 거룩한 기상이 있었다. 소년시절부터 문장에 뛰어나 벼슬자리에 올랐으나 그 지조는 정결하여 세속에 따르지 않았으며 간사한 무리들이 날뛰는 것을 보면 불평을 참지 않았다<sup>7)</sup>고 했으며, 문곡 김수항(文谷 金壽恒, 1629~1689)은 <행적기략(行蹟記略)>에서 ‘매우 뛰어나 훌륭하면서 고결하여 시속 부합하지 않았다<sup>8)</sup>’고 했다. 반대로 임억령은 관직에는 맞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 명종실록에는 ‘임억령의 사람됨이 성격은 크고 넓으며, 문장은 풍부하고 뛰어났다. 그러나 관리로서 맡은 바 임무에 직분을 다하는 데는 소질이 없어 문제를 일으켰다<sup>9)</sup>’고 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선비가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세상을 경영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고자 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을 부지런히 갈고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억령이 관직에 소질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관의 평가는 중종과 명종 때의 시대적 상황이 그다지 녹록치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훈구파 세력들의 정치적 논란이 있었으며, 농민에 대한 수탈과 탄압이 버젓하게 자행되던 시기에서 임억령이 관리로서 부조리한 세상에 처신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관리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사헌부에 있을 때는 김안로(金安老)가 폐지했던 사형수의 삼심제(三審制)를 부활시켰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받는 백성들이 없게끔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대사간으로 있을 때는 조정의 일에 착오가 있다면 대간으로서 잘못을 밝혀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등 장계(狀啓)를 올리기도 했다.

을사사화 이후 담양 성산과 고향 해남을 오가면서 지내기를 7년이 흐르자 당시 문정왕후가 수렴정정을 끝내고 명종이 친정을 선포하였다. 임억령은 조

7) 朴世采, 『南溪集』 속집 권22, <江原道觀察使林公墓表>, ‘公性傲儻不羈 有奇節偉氣 少以詞藝顯 出入華顯 顧其志操貞潔 未嘗隨俗俯仰 至見奸邪用事 輒發其不平.’

8) 金壽恒, 『行蹟記略』, 『石川集』, 여강출판사(1989), 302쪽, ‘先生爲人 奇偉高潔 不隨俗禍宮’

9) 『明宗實錄』, 9년, 6월 13일 기사.

정의 부름을 받아 동부승지(同副承旨)를 제수받아 벼슬을 다시 시작했다. 이때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과 교유를 가졌다. 1553년에 강원도 관찰사에 부임하던 중 율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가 찾아와 임억령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시를 짓는 등 교유를 맺었다. 이후 간이 최립(簡易 崔崧, 1539~1612), 아계 이산해(鵝溪 李山海, 1538~1609), 면양정 송순(俛仰亭 宋純, 1493~1582), 사촌 김윤제(沙村 金允悌, 1501~1572),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1527~1572), 서하당 김성원(棲霞堂 金成遠, 1525~1597), 제봉 고경명(霽峰 高敬命, 1533~1592),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 구봉 송익필(龜峯 宋翼弼, 1534~1599) 등과 시로 교유를 맺는 등 관직생활보다는 시인의 삶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식영정을 중심으로 한 시단을 형성하였는데, 김성원, 고경명, 정철과 함께 ‘식영정사선(息影亭四仙)’<sup>10)</sup>이라 부를 정도로 번성하였다.

여기서 임억령이 성산 곧 별피와 인연을 맺은 때는 언제인지가 문제적이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짐작건대 <석천연보>에 따르면 1545년에 발생한 을사사화(乙巳土禍) 이전에 성산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임억령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14세 때에 어머니의 명으로 늘재 박상과 육봉 박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환벽당 주인 사촌 김윤제(沙村 金允悌, 1501~1572)와는 스승 늘재 박상 문하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이로 자주 왕래하였으며, 김윤제의 친척인 소쇄원 주인 양산보(梁山甫, 1503~1557)와도 이때 교류를 통해 성산동과 인연을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억령은 양산보의 친척 동생이자 양승조(梁承祖)의 서녀인 양씨부인을 첩실로 받아들였으며, 두 명의 딸을 낳았다. 그러나 임억령이 양씨부인을 맞아들인 때가 언제인지는 문헌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 1533년 임억령이 모친의 병환을 돌보기 위해 화순 동복현감을 내려와 지내던 때에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양산보의 친척 동생을 첩실로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10) 김사엽, 『松江歌辭』, 문호사,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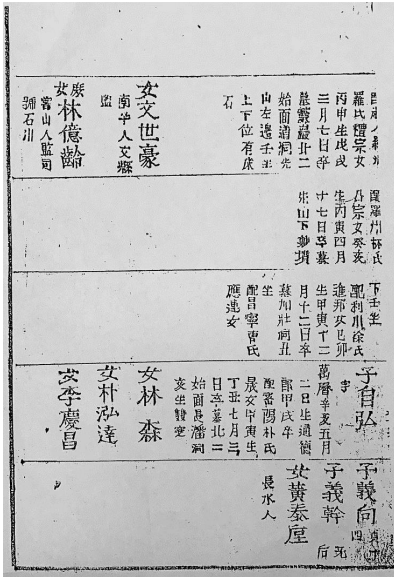


그림 1 제주양씨 족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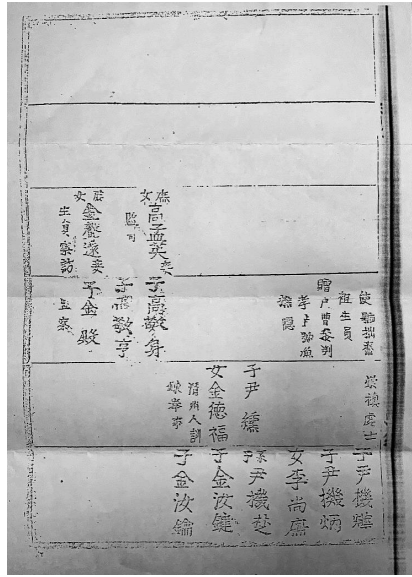


그림 2 선산임씨 족보

큰 딸은 고경명의 부친인 고맹영(高孟英, 1502~1565)에게, 둘째딸은 김성원에게 시집보냈다. <제주양씨족보>에 따르면 임억령을 서서(庶孀)라 기록되어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억령이 담양부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성산동에 지내던 1559년에 35세의 김성원(金成遠, ?~1592)을 만났다. 당시 결혼 적령기를 15세 전후로 본다면 김성원이 첩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다. 임억령이 성산에서 살던 때는 을사사화 이전으로 얼추 짐작할 수 있다.

임억령이 성산동에서 살았던 집은 현재의 서하당(棲霞堂)일 것이다. 그 이유는 김수항이 지은 <행적기략>에서 ‘임억령은 일찍이 성산동의 수석을 사랑하여 집을 짓고 지냈는데, 그 당 이름을 서하당이라 걸어뒀고, 누정을 식영정이라 하였다<sup>11)</sup>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성원의 문집에서는 서하당

을 김성원이 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둘 중 하나는 오류임에 분명하다. 여기서 <행적기략>과 <서하당유고>는 발간 시점에서 시차가 있다. <행적기략>은 김수항이 전남 영암에 유배를 살던 때 1678년에 창평에 사는 김성원의 후손이자 임억령의 외손인 김전(金殿)에게서 임억령 남은 문집을 받고 썼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서하당유고>는 1876년에 간행되어 약 200여 년 시차를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서하당유고>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가 아닌가 생각한다.

임억령은 성산동을 떠나면서 식영정과 서하당을 잘 돌봐달라는 시를 김성원에게 남겼다. 성산동 승경을 노래한 약 350여 수의 시는 그가 고향못지 않게 사랑하고 아꼈으며, 임억령의 삶에서 성산동에서 지냈던 시간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게 해준다. 그중 <식영정20영>과 <서하당8영>이 대표적이다.

임억령은 담양 성산동을 떠나 고향 해남에서 만년을 지내면서 1568년 3월 생애를 마쳐 해남 마포 명봉산 언덕에 묻혔다. 그를 일컬어 사종(詞宗)이라 하여 문장에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는 대나무나 소나무처럼 고결한 성품을 지녔으며, 세속과 타협하지 않은 삶을 영위했다. 또한 당나라 때 이백(李白)처럼 호방한 시풍을 선보이며, 도가적 낭만적 사유를 자유롭게 펼친 시인이었다.

임억령이 세상을 떠나자 사위인 김성원은 유지를 잘 받들어 식영정과 서하당의 주인이 되었다. 그 뒤로 서하당이라는 당호를 자신의 호로 삼아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다. 기대승, 고경명, 정철, 백광훈, 양응정 등과 교류를 이어가며 식영정 가단을 이끌었으며, 16세기 호남 시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1) 金壽恒, 『行蹟記略』, 『石川集』, 여강출판사(1989), 302쪽, ‘嘗愛昌平星山洞水石之勝 卜築就居扁其堂曰棲霞堂曰息影亭’

### 3. 식영정에서 아름다운 마무리

식영정은 전남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에 위치한 누정으로 명승 57호이다. 현재의 모습은 광주호가 조성되면서 옛 풍취와는 많이 다르다고 한다. 식영정 아래로 흐르는 개울을 자미탄(紫薇灘)이라고 하여 배롱나무가 줄지어 피어있는 개울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누정에 오르기 위해서는 바위돌계단을 비스듬히 올라가야 한다. 오른편에 누마루 다리를 연못에 내딛고 있는 부용당(芙蓉堂)이 단아하게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서하당(棲霞堂)이 자리잡고 있다.

돌계단 어귀 시작점에는 ‘송강 정철 가사의 터’라는 기념비가 있다. 모양새가 무슨 대회에 나가 받은 트로피처럼 생겼다. 컴퓨터 폰트로 새겨넣은 음각 글씨가 개성없어 보여 유감이다. 돌계단을 비스듬히 걸어올라 식영정 마당에 발을 들여 놓는다. 오른쪽 옆으로 돌아보면 가히 400여 년 수령을 자랑하는 소나무가 문인석마냥 위엄있게 서 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노송의 줄기는 용틀임하듯 비틀고 있고, 울울창창한 솔잎을 매달고 있는 가지는 건장한 청년의 근육질인양 생생하다. 노송의 겉면을 감싸쥐고 있는 수피는 마치 거북등껍질처럼 갈라진 모양새를 하고 있다.

노송 왼쪽 뒤로 가면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 시비가 놓여 있다. 원래 노송 앞에 두었다가 위치 문제로 논란이 일자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노송으로서는 발밑을 움죄고 있는 짐덩이를 벗어던진 것 마냥 속 시원했을 것이다. 그 뒤로는 배롱나무가 곳곳에 심어져 있다. 다시 누정 앞 마당으로 발걸음을 돌리면 광주호가 한눈에 보이는 풍광을 만난다. 물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진다. 물위를 가르며 나는 새들의 날개짓이 경쾌해 보인다. 산은 말없이 그대로 있고, 바람결은 뺨 위를 스치고 지나간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을 내려놓는다. 다시 몸을 돌려 돌기단 위로 올라가 마루 끝에 걸쳐 앉으면 비로소 식영정에 품 안에 들어앉은 셈이다. 마루 끝 앞부분에 손바닥을 짚으면 뭔가 만져진다. 애기주먹한 대못이다. 자세히 보니 구름 형상을 하고 있는 문양이 새겨

져 있다. 그런데 마치 틀린 그림 찾기 하듯 모두 같지 않고 제각각이다.

식영정의 주인은 조선 전기 때 문인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 1496~1568)이다. 누정을 지은 이는 임억령의 사위 인재 김성원(忍齋 金成遠, 1525~1597)이다. 누정의 주인과 건물을 지은 이가 서로 다른 독특한 누정이다. 김성원의 문집 『서하당유고(棲霞堂遺稿)』의 연보(年譜)에 따르면 누정을 지은 시기는 1559년 담양부사(潭陽府使)를 끝으로 관직생활을 그만두고 성산(星山)에 내려와 살던 때인 1560년(명종 15)이다. 김성원은 임억령을 찾아와 학문 배우기를 청하고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었다. 그 후 첩실인 양씨부인의 둘째 딸을 맞아들여 사위가 되었다. 제자이자 사위인 김성원이 장인을 위해 식영정을 지었던 것이다. 누정을 짓고나서 김성원이 누정의 이름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임억령에게 물었다. 임억령의 <식영정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김군 강숙(剛叔) 나의 벗이다.

푸른 시내 위에 서늘한 소나무 아래

산 기슭을 얻어 작은 집을 지었다.

네 모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가운데는 텅 비게 하고,

띠풀을 덮고 대나무로 처마를 둘렀으니,

바라보면 마치 화려한 그림으로 장식한 배 같다.

내가 휴식할 장소로 삼고

누정의 이름을 지어줄 것을 나에게 부탁하니,

그대는 장주(莊周)의 말을 들어봤는가?

장주가 말하기를 옛날에 그림자를 무서워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햇빛 아래에 낮에 빨리 도망갈수록

그림자는 끝까지 쉬지 않고 따라왔다.

나무 그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무릇 그림자는 사물의 형상이 되어 오직 사람의 형체를 따르는지라

사람이 없드리면 그림자도 따라서 없드리고,

사람이 일어서면 그림자도 따라서 일어난다.

그밖에도 가고 오고 다니며 머무는 일 모두 오직 형체가 하는 그대로다.

그러나 그들과 밤에는 없어지고  
 불빛이나 낮에만 생긴다.  
 사람의 처세도 또한 이와 같다.  
 옛말에 이르기를  
 꿈과 그림자는 물거품이라고 하였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형체를 조물주에게서 받았으니,  
 조물주가 사람을 희롱함이  
 어찌 형체가 그림자를 부리는 것만 못하겠는가?  
 그림자가 천 가지로 변하는 것은  
 형체의 움직임에 달려 있고,  
 사람이 천 가지로 변하는 것도  
 또한 조물주의 처분에 달려 있다.  
 사람은 마땅히 조물주가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니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아침에 부유했지만 저녁에는 가난해지고,  
 옛적에 귀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천하게 되기도 하니  
 다 조물주의 화로와 망치에 매달린 일인 것이다.  
 내 한 몸으로 보자면,  
 옛날에 높은 관을 쓰고 큰 띠를 두르고  
 벼슬길에 출입하였지만  
 지금은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을 신고  
 소나무와 하얀 돌 사이에서 노닐고 있다.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소박하게 사는 것을 달게 여기며,  
 고관대작들을 멀리 하고 미천한 것을 벗으로 삼았으니,  
 이는 모두 조물주가 그 사이를 희롱함이 있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 이를 알지 못함이니,  
 그 사이에 무엇을 기뻐하고 성낼 것이 있겠는가?  
 강숙이 말하였다.  
 그림자는 진실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굽히고 펴는 것은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지 세상이 버린 것은 아닙니다.

밝고 지혜로운 시대를 만나서도  
 자기 빛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선생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흐름을 타면 나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그치는 것이고,  
 가고 멈춘은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숲으로 들어온 것도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요  
 한갓 그림자를 쉬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시원하게 바람을 타고,  
 조물주와 짝이 되어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노닐 적에  
 그림자도 없어질 것이며,  
 사람이 바라보고도 가리킬 수 없을 것이니  
 이름을 '식영'이라 함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강숙이 말하기를,  
 이제서야 비로소 선생의 뜻을 알겠으니  
 청컨대 그 말을 기록하여 지(誌)로 삼겠다고 하였다.  
 계해년(1563) 7월 하의도인(荷衣道人) 쓰다.<sup>12)</sup>

<식영정기>는 여느 누정 기문과는 달리 대화체 형식으로 구성된 독특한 양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문학 갈래 중 서사시에 해당하는 부(賦)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임억령은 『장자(莊子)』 <어부(漁夫)>에서 그림자를 두려워하

12) 임억령, 「息影亭記」, 『石川集』, 여강출판사(1989), 263쪽. '金君剛叔吾友也 乃於蒼溪之上 寒松之下 得一麓 構小亭 柱其隅 空其中 苫以白茅 翼以涼簟 望之如羽蓋畫舫 以為吾休息之所 請名於先生 先生曰 汝聞莊氏之言乎 周之言曰 昔有畏影者 走日下 其走愈急 而影終不息 及就樹陰下 影忽不見 夫影之為物 一隨人形 人俯則俯 人仰則仰 其他往來行止 唯形之為然 陰與夜則無 火與晝則生 人之處世 亦此類也 古語有之曰 夢文抱影人之生也 受形於造物 造物之弄戲人 豈止形之使影 影之千變 在形之處分 人之千變 亦在造物之處分 為人者 當隨造物之使於吾何與哉 朝富而暮貧 昔貴而今賤 皆造化兒 爐中事也 以吾一身觀之 昔之戴冠大帶 出入金馬玉堂 今之竹杖芒鞋 逍遙蒼松白石 五鼎之棄 而一瓢之甘 皁莖之絕 而麋鹿之伴 此皆有物弄戲其間 而吾自不之知也 有何喜慍於其間哉 剛叔曰 影則固不能自為 若先生屈伸 由我非世之棄 遭聖明之時 潛光晦迹 無乃果乎 先生應之曰 乘流則行 得坎則止 行止非人所能 吾之入林 天也 非徒息影 吾冷然御風 與造物為徒 遊於大荒之野 滅沒倒影 人不得望而指之 名以息影 不亦可乎 剛叔曰 今始知先生之志 請書其言 以為誌 癸亥七月日 荷衣道人書

는 어리석은 사람의 우화를 들며 누정의 이름을 ‘식영’으로 삼을 것을 권하였다. 그림자는 모든 사물의 형체에 나타난다. 이를 억지로 떼내려고 하면 그림자는 더더욱 떨어지지 않는다. 천지만물의 이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로 들어가면 그림자는 저절로 사라진다. 햇빛이 세속생활의 삶이라면 그들은 자연생활의 삶을 뜻한다. 임억령은 삶의 도처에서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자연 속으로 쉬어야 함을 행간에서 말하고 있다. 자신 또한 화려한 관직생활을 해봤지만 자연과 소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 쉽든 곧 숨을 살리는 것이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의 삶을 잠시나마 자연 속에 내려놓은 삶이야말로 곧 숨을 살리는 쉽이 아니겠는가.

임억령이 <식영정기>를 지은 때는 1563년으로 식영정이 건립되던 1560년과는 3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한다. 보통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현관과 기문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때는 임억령이 담양 성산을 떠나 고향 해남으로 돌아갈 무렵이다. 석천은 자신의 생애가 멀지 않았음을 짐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久客宜旋旆	오래 지낸 나그네 으레 돌아가야 하니
秋風又別亭	가을바람 불 때 누정을 떠나네
不堪心惘惘	맥없이 잃은 마음 건디지 못하고
難制鬢星星	성성한 백발 억제하기 어렵다네
愛水重憑檻	물 좋아하여 난간에 다시 오르고
憐松更步庭	어여쁜 솔 아래 다시 뜰을 거니네
明春吾欲再	내년 봄에 다시 만나기 바라나니
爲我理巖扃	나를 위해 암경 지켜주오 <sup>13)</sup>

13) 林億齡, 「息影亭記」, 『石川集』, 여강출판사(1989), 269쪽.

이 시는 <김성원의 송별시에 차운하다>이다. 임억령이 성산동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제자이자 사위인 김성원이 송별시를 보내준 것에 대한 답시이다. 성산동의 자연승경 속에 흠뻑 취해 지냈지만 늘그막에 이르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돌아왔다. 떠나기 싫은 마음이야 두말 할 나위 없지만 속절없이 늙어가는 몸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아쉬운 마음에 벼랑 아래 자미탄 개울 흐르는 물소리 들으며 난간에 몸을 기대어 보고, 멋지게 자란 소나무 뜰을 거닐어 본다. 고향에 돌아가도 내년 봄에 다시 오마 하고 이곳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에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 시를 지은 때는 <식영정기>를 쓴 뒤 한 달 뒤인 8월이다. 임억령은 성산에서 삶의 흔적을 제자이자 사위인 김성원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아마도 <식영정기>는 식영정에서 지낸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임억령의 아름다운 마무리였을 것이다.

현재의 식영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한옥 건축양식을 하고 있다. 누정의 평면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1/4 크기의 뒤쪽 원편은 방으로 두고 나머지 3/4은 마루로 채웠다. 앞쪽 원편은 풍판을 들렀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 해지는 늦은 오후 시간에서야 알았다. 서향을 하고 있어 햇빛을 가려야 했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에는 매서운 북서풍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 그래도 답답함을 면하고자 했는지 가운데에 여닫이문을 뒀다. 자연의 이치를 지혜롭게 다룰 줄 알았던 장인의 솜씨가 느껴진다.

식영정은 언제적 건물인지 유감스럽게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건축과정에 대한 문헌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임억령이 살았을 적 당시의 담양의 누정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불에 타버렸다. 현재 남아있는 누정은 임진왜란 이후에 증진되어 여러 차례 고쳐 지은 것이다. 그러나 식영정은 현재의 건물조차 그 연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아쉬운 마음 뿐이다. 송강 정철의 현손인 정호(鄭澹)가 1723년에 지은 <식영정중수기(息影亭重修記)>가 있긴 하나 건축물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한계를 보이고 있다.

#### 4. 식영정 현판의 문화콘텐츠 가능성

옛 건물에 이름을 글씨로 써서 나무판에 새긴 현판(懸板)이 걸려 있다. 현판은 건물의 이름을 거는 편액(扁額)과 좋은 글귀를 새겨서 건물 기둥에 거는 주련(柱聯)을 합해서 부른 용어이기도 하다. 궁궐, 서원, 누정, 사찰, 사대부 고택 등 거의 모든 건물에 있다. 현판은 곧 그 건물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판에 새긴 글씨는 임금으로부터 받은 사액(賜額)부터 당대의 지식인 또는 명필이 심혈을 기울여 쓸 정도로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식영정에도 역시 현판이 걸려 있다. 식영정이라 쓴 현판은 전서체(篆書體)로 격조있고 단아한 모습을 하고 있다. 식영정에 관한 앞선 시기의 기록으로는 고경명의 <유서석록(遊瑞石錄)>이 있다. 당시 광주목사였던 갈천 임훈(葛川 林薰, 1500~1584)을 모시고 1574년 4월 20일부터 24일일까지 4박 5일 동안 광주의 무등산과 일동삼승(一洞三勝)이라 부르는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을 둘러 보고 지은 장편 기행문이다.

해질녘에서야 식영정에 도착했다. 식영정은 강숙 김성원의 별장이다. 임선생은 난간에 기대어 경치를 감상하셨는데 그 모습이 매우 차분해보였다. 밤이 되자 김성원이 촛불을 켜고 정성껏 환대해줬다. 흥겹게 놀다가 자리를 끝내니 이 또한 한 때의 멋진 추억이 될만한 일이었다. 식영정과 서하당 두 현판은 모두 박영(朴詠)이 썼다. 식영정은 팔분체(八分體)로, 서하당은 전서체(篆書體)로 썼다. 식영정과 서하당의 아름다운 경치는 이미 석천 임억령이 다 기록해 놓았다. <식영정20영>과, <서하당8영> 중에도 섞여 나오니 어찌 굳더더기라고 용납하겠는가.<sup>14)</sup>

고경명이 <유서석록>을 지을 당시 임억령은 이미 7년 전에 세상을 뜨고 난

14) 高敬命, 『遊瑞石錄』, 『靈峰全書』中,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 216쪽. ‘日夕 始到息影亭 卽剛叔別墅 先生倚檻寓賞 頗極從容 夜入棲霞堂 秉燭窮歡 興闌而罷 斯亦一時勝事也 息影 棲霞二額 皆朴公詠所題 而亭則八分 而堂則篆也 凡亭若堂之勝 已悉於石川之記 而雜出於二十詠八詠之中 奚容贅焉’

된다. 제자이자 사위인 김성원이 임역령의 유지를 받들어 식영정, 서하당의 새 주인으로 지내고 있던 때이다. 향간에는 이 기록을 근거로 김성원이 식영정과 서하당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고경명은 임역령의 제자이자 식영정4선 중 한 명으로 스승을 따라 <식영정20영>을 지었다. 그런 그가 식영정과 서하당의 주인을 김성원이라 한 것은 <유서석록>을 지을 당시인 1574년의 시점에서 말한 것이며,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여기서 새로운 정보가 있다. 바로 식영정 현판을 쓴 이가 박영이고 글씨체는 팔분체라고 했다. 국조방목(國朝榜目)에 따르면 박영(朴詠)은 부호군(副護軍) 박훈(朴煥)의 아들로 1538년 별시 문과에 급제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글씨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어 동일인물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팔분체라는 글씨체만 분명하다. 팔분체는 전서체에서 8분을, 예서체에서 2분을 취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서체는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후 글씨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장중한 장식미가 있다. 다만 획이 길고 복잡해서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예서체는 전서체의 획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가독성이 높다. 이 두 서체의 장점을 취한 것이 바로 팔분체로 나중에 해서체(楷書體)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팔분체가 그리 성행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비문과 조선후기 문인서화가 능호관 이인상(凌壺觀 李麟祥, 1710~1760)의 글씨에서 볼 수 있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이조팔분소전가(李潮八分小篆歌)>에서 아래와 같이 읊었다.

八分一字直百金 팔분체의 한 글자는 백금에 값하니  
蛟龍攀斧肉屈強 교룡이 서린 듯하고 획 또한 억세니라

팔분체의 값어치를 백금에 비할 수 있다고 했으니 노획한 서예가라 할지라도 녹록치 않은 글씨체로 봤던 것이다. 용이 꿈틀거리듯 기운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굵은 획에서 사뭇된 생각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위엄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3 식영정 현재 현판



그림 4 서하당 현재 현판

현재 식영정 현판 글씨는 팔분체가 아닌 전서이며 정확하게는 소전(小篆)에 가까운 서체이다. 임진왜란 당시 불에 타버린 식영정을 이후에 중건하면서 현재까지 전해져 온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 현판 글씨는 전남 보성 출신 송곡 안규동(松谷 安圭東, 1907~1987)이 썼다고 하나 관련 자료가 없어 정확치 않다. 식영정 아래 부용당 현판을 쓴 안규동이 식영정 현판까지 쓴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짐작할 뿐 정확한 것은 아니다.

식영정에는 현재 14점의 현판이 걸려 있다. 이중 한시만을 새겨 걸어놓은 시판(詩板) 10점으로 <식영정20영>을 지은 임억령, 김성원, 고경명, 정철의 시 각 1점, 민덕봉(閔德鳳, 1519~1573)의 차운시 1점, 정민하(鄭敏河, 1671~1754)의 원시와 이를 차운한 김진상(金鎭商, 1684~1755)의 시 1점, 정철의 관동별곡을 노래한 정민하의 시 2점, 정해승(鄭海承, 1821~1892)의 시 1점, 정해심(鄭海心,

1858~1907)의 시 1점, 정조원(鄭祚源, 1815~1886)의 시 1점, 정민하의 시 1점, 임억령의 <식영정기> 2점, 정호의 <식영정중수기> 1점 모두 14점이다.

高臥竹林間 숲에 편안히 누웠더니  
 亭臨瑞石山 누정에서 서석산 마주하네  
 無心雲出岵 봉우리에 걸린 구름 무심하여라  
 何以主人閒 무엇이 주인의 한가한만 할까

송강 정철의 후손 정민하가 지은 <식영정>이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주인 없이 쇠락한 식영정과 서하당을 사들여 고쳐 지었다. 비록 그때의 모습이 아니어도 성산의 승경만은 변함없다. 누정 뒤 대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 들으며 맞은 편 무등산 산허리에 걸린 구름이 한가하기만 하다. 한가함을 즐겼던 옛주인의 흥취를 짚고 간결한 다섯 글자에 자연스럽게 담고 있다.

식영정을 노래한 대표적 작품은 임억령의 <식영정20영>이다. 식영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곳까지 20개의 승경을 선택하여 지은 다섯 글자 네 줄로 이루어져 있다. 임억령은 식영정을 찾는 이마다 주변 풍경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곳에서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며 자유자재한 생활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식영정20영>은 식영정에서 바라본 경관을 장소에 따른 특성을 간추려서 노래한 작품이다. 곧 식영정정 주변의 산, 마을, 시냇물, 숲, 들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상향을 공간의 인식 태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



그림 5 식영정 현판, 歌隱老夫 作

다. 임억령의 <식영정20영>을 받아본 김성원, 고경명, 정철은 같은 제목으로 시상을 각기 달리 하여 독립적인 <식영정20영>을 지었으며, <면양정30영>, <소쇄원48영> 등과 같이 누정제영시(樓亭題詠詩)라는 독특하고 관습적인 제영시를 창작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전남 담양의 대표적 누정 중 하나인 식영정은 2000년에 건립된 한국가사문학관 근처에 있어 수학여행단은 물론이고 인근의 소쇄원, 환벽당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누정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누정을 중심으로 원근의 자연환경이 원림(園林)으로 조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정에 걸린 현판을 통해서 무등산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당대에 교유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텔링이 있다.

여기서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또 한 가지 논의점은 누정이 가지는 문화콘텐츠 가능성이다. 누정이 자리한 무등산의 경우 2014년 유네스코에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자연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세계지질공원으로서 무등산은 그 아랫자락에 식영정 원림을 비롯하여 소쇄원 원림, 독수정 원림, 환벽당 원림, 명옥헌 원림, 면양정 원림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주 드문 예라고 하겠다.

누정은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화양식이다. 누정은 건축, 원림은 자연환경, 현판은 기록문화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는 자연환경과 현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한국의 누정원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과 역사,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성향은 한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판의 경우는 한국가사문학 필사본, 5·18광주민주화항쟁운동 당시 관련 기록물과 함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누정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누정원림이 가지고 있는 문화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누정 원림의 문화적 자원을 문화콘텐츠로 재

구성하여 이에 대한 후속 연구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5. 마무리

지금까지 석천 임억령이 성산동에서 지냈던 삶과 식영정 현판의 문화콘텐츠적 가능성에 대해서 소략하나마 시론적 성격을 띠고 논의해 보았다. 한 작가의 삶에서 출생, 성장, 사망에 따르는 시간적 주기의 영향관계가 중요함은 당연하다. 그는 73세의 삶을 지내오면서 스승인 놀재 박상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고향 해남에서 올라와 당시 동문수학 했던 김윤제가 살던 곳으로 놀러오면서 처음으로 성산동에서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과거에 합격하여 환로생활을 지내면서 담양부사를 끝으로 고향 해남이 아닌 성산동으로 내려왔다. 그곳에는 첩실인 양씨부인과 두 딸이 살고 있었으며, 자신을 따르는 후배 문인들이 있었다. 사위 김성원이 자신을 위해 ‘식영정’을 지어주면서 그곳에서 만년을 보냈다. 그가 성산동의 승경을 노래한 시가 350여 수가 적지 않음을 볼 때 그의 삶에서 성산동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본고가 주목했던 것은 임억령의 가족, 곧 양씨 부인과 두 딸의 존재였다. 임억령에게 고향이 아닌 성산동은 곧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임억령의 성산동 가족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선산임씨족보와 제주양씨족보를 비교 검토하면서 밝히고자 하였다.

그 다음 논의로는 식영정 누정의 문화콘텐츠적 가능성이다. 식영정은 전남 담양을 대표하는 누정의 하나로 인근의 소쇄원, 환벽당과 함께 일동삼승(一洞三勝)이라 할 정도로 유명하다. 누정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문화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당대의 인물들이 교류를 나눴던 곳이다. 누정을 중심으로 인근의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누정에 걸린 현판은 스토리텔링 요소로도 재구성이 가능한

문화콘텐츠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누정의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부분으로 앞으로 후속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고전문학이 지닌 문화콘텐츠적 요소를 새롭게 더하여 더 나은 연구성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고경명, 『제봉전서』, 한국정신문화원  
박동량, 『寄齋雜記』 권3,  
박세채, 『남계집』, 한국문집총간 138, 한국고전번역원  
백광훈, 『옥봉시집』, 한국문집총간 47, 한국고전번역원  
이궁익, 『燃藜室記述』, 권11, 고전국역총서 3, 한국고전번역원  
임억령, 『석천시집』, 한국문집총간 27, 한국고전번역원  
임억령, 『석천집』, 여강출판사  
허균, 『惺所覆瓿藁』, 한국문집총간 74.  
『조선왕조실록』 명종

### 2. 논저

- 김사엽, 『松江歌辭』, 문호사, 1959.  
정익섭, 『개고 호남가단연구』, 민문고, 1989.  
고영진, <16세기 호남사림의 활동과 학문>, 『남명학연구』 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3.  
박은숙, 『16세기 호남 한시 연구』, 월인, 2004.  
김중서, 『16세기 호남시단과 당풍』,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박종우, 『16세기 호남 한시의 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박명희, 『호남 한시의 전통과 정체성』, 경인문화사, 2013.  
          , 『호남 한시의 분석적 이해』, 보고사, 2019.  
최한선, 『고전시가와 호남시단의 이해』, 태학사, 2017.

| Abstract |

## Seokcheon Lim Eok-ryung's life and signboard reflected in Shikyoungjung

Lim, Jun-sung

Kwangju Women's Univ. Prof.

This thesis is to briefly discuss the events that Lim Eok-ryeong spent in Seongsandong(星山洞) and the possibility of the cultural contents of Shikyoungjung(息影亭)'s signboard as a test. Lim Eok-ryeong lived until the age of 73. He came up from his hometown Haenam to receive the teachings of his teacher, Nuljae Park Sang. He speculates that he had a relationship for the first time when he came to Seongsandong, where Kim, Yoon-je lived, where he studied together at the time. He then passed the national exam and lived in her office, leaving the vice versa of Damyang at the age of 64 and descending to Seongsandong, not his hometown Haenam. There lived his wife Yang and his two daughters. There were junior writers who followed him himself. His Daughter's husband Kim Seong-won built a pavilion for himself, "Sikyoungjung," and spent his old age there. The fact that he remains close to 350 poems that sang the scenery of Seongsandong, I can say that Seongsandong is important in his life. Here, the presenter's attention was the existence of Lim Eok-ryeong's family, namely Yang's wife and two daughters. It can be said that

Seongsandong, not his hometown, was possible because he had a family. To this end, in order to elevate the Seongsandong family of Lim Eok-ryeong, which was missed in the previous study, to elucidate, comparing and reviewing the Sunsan-Lim clan genealogy and the Jeju-Yang clan genealogy. The next is the possibility of Shikyongjung's cultural contents. Sikyeongjeong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pavilions representing Damyang, Jeollanamdo, and is famous enough to be called Ildongsamseung(一洞三勝) along with nearby Soswaewon(瀟灑園) and Hwanbyeokdang(環碧堂). The pavilion is not a simple structure, but a central space for cultural activities, and is a place where people of the day shared their convers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signboard hanging in the pavilion as well as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near and distant places with the center of the pavilion is a prototype of cultural content that can be reconstructed as a storytelling element.

**Key words** : Lim Eok-ryeong, Seongsandong, Yang's wife, Sikyeongjeong, Signboard, Cultural contents